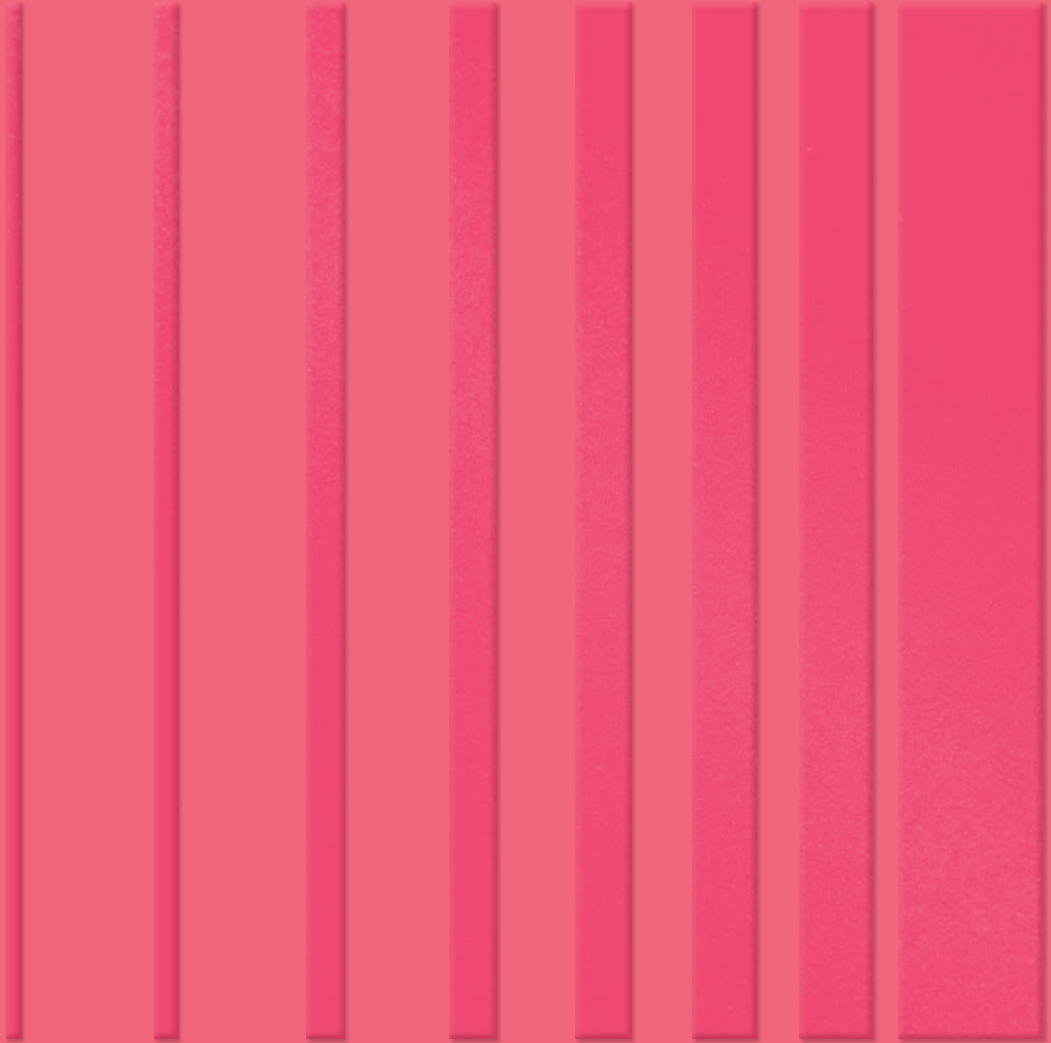


A L C H E M Y O F

DESIGN



디자인의 연금술

디자인의 연금술

ALCHEMY OF DESIGN



연금술사는 쇠를 금으로 바꾸는 사람을 뜻하며, 오늘날에는 변화와 창조의 주체를 빗대어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아에도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창조하는 연금술사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성도를 구현하고 작은 차이를 끝까지 다듬어내며, 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실현하는 사람들.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다채로운 감각적 경험을 창조하는 세아인들의 모습이 감동을 전합니다.



디자인은 사물에 또 다른 가치를 입힌다.
선택의 기준을 넘어 시선과 생각, 감각의 흐름을 이끌고 결국 경험을 만든다.



그렇게 축적된 경험은 삶의 질을 바꾼다.
그 뒤에는 디테일을 끝까지 다듬는 이의 집요한 고민과 창의가 있다.



형상과 패턴, 색 그리고 질감까지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최고의 조합을 찾아 디자인을 완성하는 연금술사들이 있다.

10

사색하다
디자인의 연금술,
머무는 방식을 바꾸는 공간

12

통찰하다
공간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
- 기능을 넘은 경험의 시대,
공간과 소재의 새로운 역할



18

대화하다
기능을 넘어 감각으로, 가치를 완성하다
- 세아씨엠 기술개발실 디자인파트



24

뉴스룸 1
다시 함께, 더 멀리!
- 제19회 철강 마라톤대회

30

뉴스룸 2
글로벌 전시 무대에서 입증한
소재 기술력과 미래 대응력
- Wire & Tube 2026 · 부산국제원자력
산업전 참가

34

세아 명예의 전당
원스파 국산화로 새 하늘을 열다
- 세아첨원특수강 · 세아항공방산소재
세아업적상 특별상 수상팀



40

세계인, 세아인
품질과 공급의 안정을 도모하며
현장을 지켜온 시간
- 응우옌 쫁 타이(Tai)
SeAH Steel Vina 구매 · 품질 매니저

44

맛의 추억은 철을 타고
오븐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폭신한 행복, 머핀



48

부캐의 발견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찾는 시간
-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운영지원팀
김민지 책임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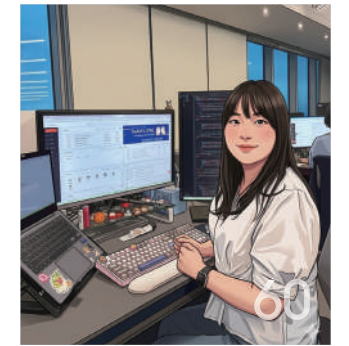
공간미학
머물고 흐르며 누리는 자연과 예술
- 안양파빌리온

58

세아뉴스 & 사우동정
그룹 내 주요 행사 및
사우동정 소식

60

당신을 칭찬합니다
세아홀딩스 지원팀
송이보담 수석



세아웹진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회복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 주세요. 또한 상담이 필요한 고민거리나 공유하고 싶은 채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실 황수진 대리 sujin.hwang@seah.co.kr / 02-6970-0094

발행일 2026년 6월 18일(통권 423호)

발행인 김수호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4

ISSN 2636-1787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Studio KENN

*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연금술, 삶에 감각을 입히는 수많은 선택

세상에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들으며 무엇을 입고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경험하는지까지.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디자인이 있다.
디자인은 단순한 형태나 외형을 넘어
행동과 감각, 경험의 방식을 바꾸며 우리의 일상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

기능을 충족시키는 데 머물던 시대를 지나
이제 디자인은 경험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공간의 구조와 이동수단의 외관, 패션의 실루엣, 제품의 패키지까지
모든 요소는 감각을 자극하고 선택을 이끈다.

그리고 그 모든 디자인의 시작에는 '소재'가 있다.
형태를 지탱하고, 이미지를 결정하며, 완성도를 좌우하는 근원.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어떻게 가공하며,
어떤 모습으로 구현하느냐에 따라 경험의 깊이와 가치도 달라진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수많은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소재 하나하나에는 모두 깊은 고민과 선택의 결과가 담겨 있다.
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창조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길을 거쳐 소재는 디자인이 되고,
디자인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아름다운 배경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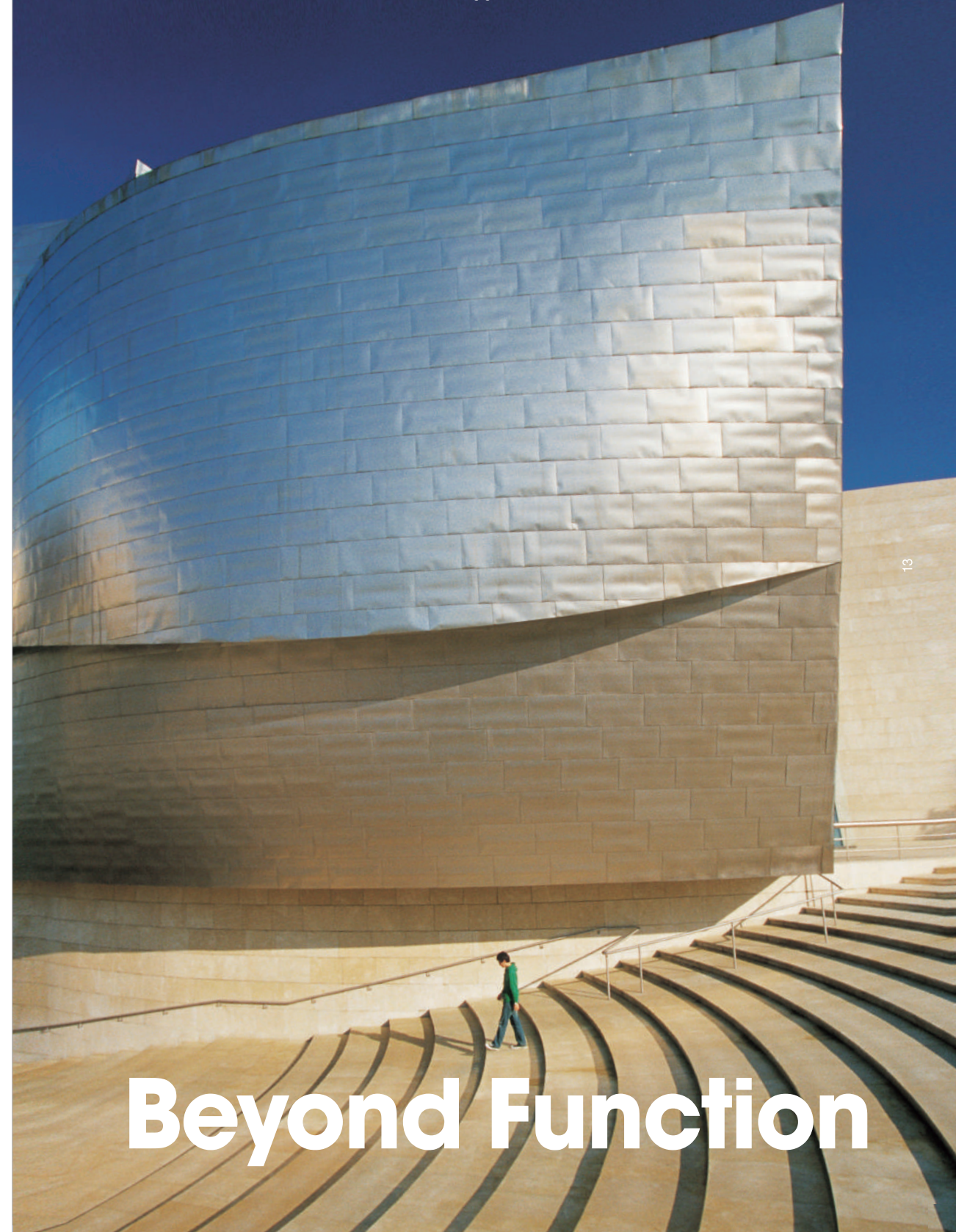
공간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

기능을 넘은 경험의 시대, 공간과 소재의 새로운 역할

글. 김경인 브이아이랜드 대표 · 공간 디자이너

한때 공간은 기능이였다. 비를 막고, 사람을 수용하고, 물건을 보관하고, 일을 처리하는 물리적 조건. 좋은 공간은 효율적이고 튼튼하며 관리하기 쉬운 공간이었다. 그 말은 지금도 틀리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Museo Guggenheim Bilbao



Beyond Function



롤렉스 러닝 센터



ROLEX LEARNING CENTER

기능에서 경험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공간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느끼고, 기억하며, 비교한다. 같은 사무실인데도 유독 집중이 잘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같은 매장인데도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곳이 있다.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도 몸이 먼저 반응한다. 어떤 공간은 사람을 재촉하고, 어떤 공간은 사람을 머물게 만든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롤렉스 러닝 센터(Rolex Learning Center)'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은 전통적인 도서관처럼 기능별로 공간을 잘게 나누지 않았다. 도서관, 정보센터, 토론 공간, 학습 공간, 카페와 레스토랑이 하나의 큰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책을 읽는 사람, 걷는 사람, 쉬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이 하나의 유기적인 지형 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벽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대신, 완만한 경사와 시선의 흐름이 사람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이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능이 수행되는가'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머무르며, 무엇을 경험하는가'이다. 공간은 더 이상 기능을 담는 상자가 아니다. 경험의 리듬을 설계하는 장치다.

삶의 질은 가까운 공간에서 시작된다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소득, 제도, 복지, 건강 같은 거시적인 단어를 떠올린다. 물론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하루를 가장 가까이에서 좌우하는 것은 결국 공간이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어떤 공간 안에서 보낸다.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일터로 이동하며, 상업공간과 공공공간을 오가고, 때로는 병원과 돌봄의 공간에 머무른다.

사람의 하루를 직접 어루만지는 것은 늘 가까운 요소들이다.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앉을 자리가 있는지, 시야가 막히는지 트이는지, 조용히 숨을 돌릴 틈이 있는지에 따라 일상의 곁이 달라진다. 재료와 색채가 안정감을 주는 공간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 결국 공간의 질은 생활의 질과 분리될 수 없다.

책을 읽는 사람, 걷는 사람, 쉬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이 하나의 유기적인 지형 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영국의 암 환자 지원센터인 '매기스 센터(Maggie's Centre)'는 이 점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이 공간은 처음부터 '병원처럼 보이지 않는 공간'을 지향했다. 병원은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지만, 특유의 차가운 분위기로 사람을 위축시키기도 한다. 병원에 들어설 때 느끼는 막연한 긴장감이 그렇다.

매기스 센터는 그 반대의 경험을 제안한다. 내 집 같은 따뜻한 분위기, 사려 깊게 조절된 빛, 바깥 풍경이 내다보이는 창,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부엌 같은 공간. 이곳에서 공간은 치료의 배경에 머물지 않는다. 환자를 덜 불안하게 하고, 조금 더 사람답게 머무르게 돕는 치유의 환경이 된다. 좋은 공간은 반드시 화려한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을 덜 지치게 하는 공간이 진짜 좋은 공간이다. 덜 긴장하게 하고, 덜 고립되게 하며, 조금 더 자연스럽게 숨 쉴 수 있게 하는 공간 말이다. 공간을 바꾼다는 것은 벽과 바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하루가 흘러가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시각적 요소는 집중력과 스트레스를 바꾼다

공간의 시각적 요소는 종종 과소평가된다. 사람들은 디자인을 취향의 문제 쯤으로 여기며 예쁜지, 세련됐는지, 유행에 맞는지 같은 표면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간 디자인은 훨씬 깊은 차원의 문제다. 빛은 사람의 긴장도를 바꾸고, 색은 감정의 속도를 바꾸며, 동선은 몸의 리듬을 바꾼다. 결국 공간의 시각적 요소는 집중력과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쉽게 말해,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장치가 아니다. 그 공간이 사람을 얼마나 덜 피곤하게 하는지, 얼마나 업무에 몰입하게 하는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자연광이 충분하고 눈부심이 정교하게 조절된 환경은 사람을 한층 편안하게 만든다. 시각 환경이 안정된 공간에서는 집중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매기스 센터



MAGGIE'S CENTRE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이 공간은 처음부터 '병원처럼 보이지 않는 공간'을 지향했다.

아랍에미리트의 '루브르 아부다비(Louvre Abu Dhabi)'의 거대한 돔 아래 풍경을 떠올려보면 이 말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그곳에서 빛은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는다. 기하학적인 여러 겹의 패턴을 통과한 햇빛이 바닥 위로 흩어지듯 내려온다. 사막의 강렬한 햇빛이 이곳에서는 부드러운 '빛의 비'가 된다. 사람은 같은 빛을 전혀 다르게 경험한다. 눈부심은 줄고, 긴장은 누그러지며, 공간은 한층 깊어진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사실은 분명하다. 빛은 단순히 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잘 설계된 시선의 깊이, 과하지 않은 색채, 안정된 표면과 빛의 반사는 사람의 집중력과 스트레스에 직접 맞닿아 있다.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괜히 목소리를 낮추고, 어떤 공간에서는 금방 나가고 싶어 하곤 한다. 그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공간의 시각적 환경이 우리 몸을 먼저 설득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이다.

공간의 또 다른 언어, 산업 소재

이쯤에서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설계가 공간의 구조를 만든다면, 소재는 그 구조의 표정을 만든다는 점이다. 같은 형태의 건축물이라도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공간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는다. 빛을 흡수하는 표면은 차분함을 만들고, 빛을 반사하는 표면은 선명함과 긴장감을 높인다. 질감이 살아있는 표면은 시각만으로도 촉각을 상상하게 하고, 얇은 프레임이나 투과성 있는 막은 공간을 한층 가볍게 느끼게 만든다.

이제 소재는 설계 뒤에 따라오는 마감재에 그치지 않고, 공간을 읽게 하는 또 하나의 언어로 자리잡았다. 사람은 도면보다 먼저 표면을 마주하고, 구조보다 먼저 재료가 주는 인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Guggenheim Museum Bilbao)'은 이 사실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이 건물의 외벽을 감싸고 있는 티타늄 금속 외피는 단지 외장 마감재에 머물지 않는다. 건물 전체의 독창적인 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다. 곡면으로 흐르는 금속 표면은 거대한 덩어리를 무겁게 보이게 하는 대신 부드럽게 흐르도록 만든다. 빛이 닿을 때마다 표정이 바뀌고, 보는 각도에 따라 건물은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금속은 여기서 차갑고 단단한 구조재의 역할에서 벗어나, 공간의 감정을 빚어내는 심미적 재료가 된다. 과거 산업 소재는 오랫동안 뒤에 있었다. 얼마나 튼튼한지, 오래가는지, 관리가 쉬운지 등 주로 물리적 성능으로만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오늘날의 산업 소재는 공간의 선과 깊이, 인상을 만드는 핵심 디자인 요소가 됐다. 즉, '성능의 재료'인 동시에 '감각의 재료'인 것이다. 사람들은 재료의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그 재료가 빚어낸 공간의 분위기는 기억한다.



루브르 아부다비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사람들은 재료의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그 재료가 빚어낸 공간의 분위기는 기억한다.

디자인의 가능성은 결국 만드는

기술에서 넓어진다

좋은 디자인은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재료를 얼마나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지가 그 아이디어의 크기를 결정한다. 자르고, 접고, 휘고, 뚫고, 표면을 처리하는 가공 기술은 단지 제작 단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형태가 어디까지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지, 표면이 얼마나 섬세해질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공간이 사용자에게 어떤 감각을 선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다.

따라서 현대 디자인은 형태를 먼저 그리고 재료를 나중에 끼워 넣는 방식만으로는 완성되기 어렵다. 구조와 제작, 표면과 감각이 동시에 설계되어야 한다. 뛰어난 가공 기술은 재료 본연의 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느끼는 표정과 깊이를 완전히 달라지게 한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마카오의 '모르페우스 호텔(Morpheus Hotel)'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이 건축물은 구조와 외관이 분리되지 않는다. 외부의 패턴이 곧 구조이고, 구조가 곧 건물의 인상이 된다. 기술이 뒤로 숨지 않고 미학과 전면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해진 시대의 건축을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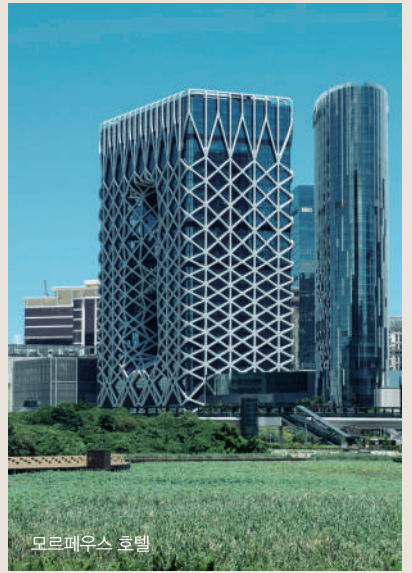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재와 가공 기술은 더 이상 보조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건축 내외장재, 인테리어 마감재는 물론 가전제품의 외관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기능을 이해하기 전에 표면을 먼저 인식하고 그 표면에서 제품의 완성도를 읽어낸다. 제품과 공간은 겉보기에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재'라는 공통된 매개체를 통해 하나의 경험으로 기억된다.

철은 오늘의 디자인 언어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철은 더 이상 구조와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철은 이제 건축물의 보이지 않는 뼈대에만 숨어있는 재료가 아니다.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제품의 첫인상을 결정하며, 사용자의 감각적 경험을 정교하게 다듬는 핵심 재료로 진화했다. 색과 질감, 빛의 반사율과 표면의 깊이, 가공의 정밀도에 따라 철은 전혀 다른 표정을 보여준다. 철이 가진 특유의 단단함은 세련미가 되고, 차가움은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며, 본연의 기능은 경험으로 확장된다. 결국 공간을 바꾸면 많은 것이 바뀐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머무는 시간이 달라지며, 스트레스의 밀도가 변한다. 나아가 어떤 브랜드를 기억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기능을 넘어 경험을 설계하는 이 시대에, 좋은 공간은 결국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해를 현실로 옮기는 힘은 다름 아닌 소재와 가공 기술에서 나온다.

오늘날 철은 공간의 아름다움과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는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가 됐다. 연금술이란 무(無)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마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물질의 가능성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장인의 노력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철을 통해 공간의 감각과 경험을 새롭게 빚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철의 표면에 아름다움과 기능, 기술과 감성을 함께 새겨 넣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디자인의 연금술사'라 불러도 좋지 않을까. ☺



모르페우스 호텔

외부의 패턴이 곧 구조이고, 구조가 곧 건물의 인상이 된다. 기술이 뒤로 숨지 않고 미학과 전면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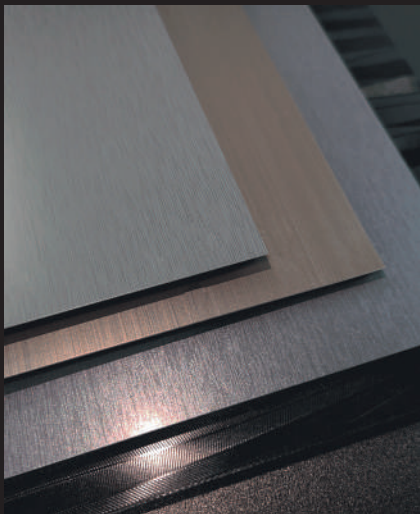
기능을 넘어 감각으로, 가치를 완성하다

세아씨엠 기술개발실 디자인파트

차갑고 단단한 철강은 '기능의 소재'로만 인식돼 왔다. 그러나 표면에 색과 패턴, 질감이 더해지는 순간, 철은 전혀 다른 성격의 소재로 재탄생한다. 건축물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가전제품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소로 변화하는 것이다.

세아씨엠 기술개발실 디자인파트는 바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단순한 외관 설계를 넘어, 독보적인 기술과 섬세한 감각을 결합해 철강에 새로운 생명과 가치를 부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철강에 '표정'을 입히는 사람들

세아씨엠은 도금강판과 컬러강판을 제조·판매하는 철강 판재 전문 기업이다. 그중 디자인파트는 건축 내외장재와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프린트강판의 외관 개발을 담당하며, 패턴·색상·질감·광택 등 외관 요소 전반을 설계한다. 동시에 제품 기획부터 개발, 양산, 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실현하고 있다.

김태훈 PL은 디자인파트를 소개하며 “시장 요구를 분석해 이를 반영한 디자인을 도출하고, 해당 디자인이 생산현장에서 실제 제품으로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디자인파트가 단순히 미적인 요소를 더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아씨엠의 프린트강판은 건축물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와 아파트 현관문 등의 내외장재로 사용되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외장재로도 적용된다. 하지만 고객이 처음 접하는 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샘플이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 또한 디자인파트의 주요 임무다. 제품 개발 이후에도 제안서와 샘플북, 카탈로그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경쟁력을 고객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배희진 대리는 “작은 샘플만으로는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디자인파트에서는 고객이 실제 적용된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제품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디자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

디자인파트의 또 다른 역할은 시장을 읽는 것이다. 특히 가전제품 분야에서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선호가 크게 달라진다. “어떤 지역에서는 고광택을 선호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매트한 질감을 선호합니다. 심지어 특정 패턴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시장도 있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소진 과장은 같은 제품이라도 시장에 따라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처럼 디자인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고객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협업’은 핵심 키워드다. 구현 가능성과 시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제품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홍보와 영업으로 연결한 후 고객 반응을 다시 제품에 반영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기술·품질·생산·영업 부서와 긴밀히 협력한다.

컬러강판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외형을 넘어 제품의 등급과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철에 표정을 입히는 연금술

철강이라는 소재에 표정을 부여하는 일. 디자인파트의 역할은 세아씨엠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같은 소재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정소진 과장은 “색상과 패턴, 질감의 완성도에 따라 같은 제품도 프리미엄 제품이 되기도 하고 일반 제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며 “디자인은 소재를 바꾸지 않고도 그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전 제품은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영역에 있는 만큼 외관 디자인이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디자인의 미세한 차이가 곧 제품의 등급과 브랜드 이미지를 좌우한다.

김준태 대리는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건축물에 적용돼 빛을 받을 때 드러나는 미묘한 깊이감이 있다”며 “그 ‘한 곳’ 차이가 제품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그는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디테일과, 그 디테일이 이끄는 차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컬러강판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외형을 넘어 제품의 등급과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같은 소재가 전혀 다른 제품과 건축물로 인식되는 순간, 디자인이 가진 힘이 발휘되고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



기술과 감각 사이에서

디자인파트의 작업과 예술의 차이는 '기술'에 대한 고려에 있다. 컬러감판 디자인은 자유로운 표현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김태훈 PL은 "순수예술과 달리 산업디자인은 반드시 기술적 한계 안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심미적인 상상력만으로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생산 설비와 공정, 품질 기준, 원가뿐 아니라 디자인 트렌드와 고객의 선호도까지 모두 고려해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감각과 현실, 즉 기술 사이에서 끊임 없이 균형을 잡는다. 생산 가능성과 원가, 품질, 시장성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디자인의 난도는 더욱 높아진다.

이에 대해 김준태 대리는 "건축 자재인 내외장재는 장기간 사용되는 만큼 외관뿐 아니라 내구성과 환경 저항성 등 물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건재 분야의 디자인은 시간과 공간을 견디는 완성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다.

가전제품 분야의 디자인에서는 소비자의 취향과 트렌드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선택할 때 외관 디자인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디자인파트는 색상과 패턴, 질감의 미세한 차이를 통해 차별화를 만들고, 높은 제품 등급과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트렌드와 소비자 취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디자인으로 구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건재 분야의 디자인은 시간과 공간을 견디는 완성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다.



많은 제약과 높은 난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파트는 끊임 없이 한계를 넘어선다. 구현 가능한 아름다움을 만들고, 차가운 철판을 고유한 감성을 지닌 소재로 바꾸는 것. 그것이 디자인파트가 만들어내는 '연금술'이다.

철이 생활의 배경이자 장면이 되는 순간

세아씨엠 디자인파트는 지금까지 약 800여 종의 프린트 패턴을 개발했다. 초기에는 기존 시장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업계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위치로 성장했다. 자신들이 만든 디자인이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경쟁사가 이를 따라오는 경험도 거듭되고 있다.

이 변화는 디자인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철강 산업에서는 품질과 성능을 기반으로 한 기술 경쟁력과 더불어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결국 디자인은 단순한 외형 개선이 아니라, 제품을 '팔리게 만드는 힘'이 된다.

한편, 디자인파트는 기술을 넘어 사회 변화의 중심이 된 AI를 활용해 디자인 결과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AI를 '대체 수단'이 아닌 실행을 가속화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패턴 생성과 이미지 시뮬레이션, 색상 조합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방향 설정은 여전히 디자이너의 몫이다.

김태훈 PL은 AI 기술의 도입이 디자이너들에게 더 큰 창조적 자유를 부여했다고 설명한다. "AI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의 본질은 여전히 사람의 판단과 감각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어떻게 활용해 더 높은 가치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디자인파트는 AI를 활용해 디자이너들이 작업의 방향성을 정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디자인파트의 작업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의 소재가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와 제품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감각'이다.

차갑고 단단한 철판 위에 새로운 감성을 입히는 일. 그 과정에서 기술과 감각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또 결합한다. 그리고 그 끝에서 철은 더 이상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펼쳐진 삶의 배경이자 완성된 장면이 된다.☺



다시 함께, 더 멀리!

제19회 철강 마라톤대회

철강인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함께 뛰는 철강, 도약하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제19회 철강 마라톤대회'가 지난 5월 미사경정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해에 이어 여름의 문턱을 넘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코스를 누비며 철강인들의 화합과 열정을 보여줬다. 세아 임직원들 역시 동료와 가족과 함께하며 뜨거운 하루를 만끽했다.





거센 폭우로 대회 개최 여부를 걱정해야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른 아침부터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행사장을 감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가 모인 이번 대회는 출발 전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LG트윈스 치어리딩 팀의 공연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참가자들은 몸을 풀며 출발을 준비했다. 지난해에 이어 방승인 김한석 씨가 진행을 맡아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개회식에서는 장인화 한국철강협회 회장이 단상에 올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철강인 여러분을 만나 뵈게 되어 매우 반갑다"며 "이 시간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순간으로 남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을 비롯한 철강업계 주요 인사들이 소개됐고, '함께 뛰는 철강, 도약하는 내일'이라는 구호와 함께 개최 버튼을 누르는 세리머니가 진행되며 대회의 막이 힘차게 올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JFE스틸 가토 아키하시 부회장도 참석해 철강인들의 국제적 교류와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올해 대회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됐다. 역대 최대 참가 인원을 고려해 10km 코스는 두 개 그룹으로 나눠 출발했고, 이어 5km 코스 세 개 그룹과 걷기·가죽 그룹이 순차적으로 출발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가 이어졌으며, 코스 내 다섯 개 의료센터를 운영해 참가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록 경쟁보다는 안전하고 즐거운 참여에 초점을 맞춰 순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함께 뛰는 철강, 도약하는 내일’이라는 구호와 함께 개최 버튼을 누르는 세리머니가 진행되며 대회의 막이 힘차게 올랐다.





더위도 막을 수 없는 철강인의 열정

“출발!” 신호와 함께 수천 명의 철강인들이 일제히 스타트라인을 넘어섰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동료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이들, 유아차를 밀며 아이와 나란히 걷는 가족들, 각자의 속도로 레이스를 즐기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어우러지며 활기찬 풍경을 만들어냈다.

출발 후 약 20분이 지나자 5km 코스 완주자들이 하나둘 결승점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30분 무렵부터는 10km 참가자들도 땀에 흠뻑 젖은 채 환한 표정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레이스를 마친 참가자들은 세아 부스에 모여 점심 식사를 즐기며 행운권 추첨 이벤트에 참여했다.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폴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등 다양한 경품이 준비됐고, 당첨자가 호명될 때마다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JFE스틸 가토 아키히사 부회장도 함께해 건배사를 전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힘차게 달리는 세아 가족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큰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저는 5km 구간을 60분 만에 완주했다”며 유쾌한 농담을 건네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국경을 넘어 함께한 철강인들의 따뜻한 연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을 향한 도약으로

세아홀딩스 경영총괄 박성준 이사는 올해도 10km 레이스에 도전해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40분 이내 완주를 목표로 했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 중간에 속도를 조절하면서 41분대에 들어왔다”며 “평소에도 마라톤을 즐겨 1년에 두세 차례 풀코스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 마라톤대회는 철강인들의 축제와도 같은 자리”라며 “모두가 함께 뛰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큰 힘을 얻는다.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5km 코스에서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세아베스틸 품질보증팀 임상훈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대회에 참여했다. 그는 “아이가 다섯 살이 되면서 올해는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해 가족 모두가 참여했다”며 “날씨가 더워 아이가 힘들지 않았을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매우 뜻깊은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에서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달려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얻었다”고 전했다.

더위와 땀도 이날의 즐거움을 막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완주를 축하하며 기념사진을 남겼고, “세아”를 외치는 순간 현장은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찼다.

제19회를 맞은 철강 마라톤대회가 남긴 것은 단순한 완주 메달 이상의 의미였다. 철강인들이 함께 내딛은 오늘의 한 걸음이 곧 내일을 향한 도약임을,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다. ♡

글로벌 전시 무대에서 입증한 소재 기술력과 미래 대응력

Wire & Tube 2026 ·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참가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가능성 연 Wire & Tube 2026

세아그룹은 지난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 전시회 'Wire & Tube 2026'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에는 세아제강, 세아창원특수강, Inox Tech, CTC 등 총 4개 계열사가 함께 참여해 그룹의 기술력과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선보였다.

전시에서 세아제강은 탄소강 및 스테인리스 강관과 함께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전용 강관을 소개하며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기술력을 제시했다. Inox Tech는 클래드 및 니켈알로이 제품을 통해 고부가가치 소재 기술력을 강조했으며,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테인리스 무게목 강관을 중심으로 고품질 소재 경쟁력을 선보였다. CTC는 정밀관 제품인 Stick Tube를 통해 차별화된 정밀 가공 기술력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 세아그룹의 부스는 'Flexible Strength'라는 컨셉으로 구성됐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빛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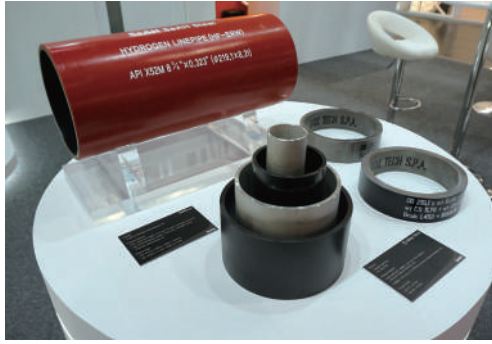
세아의 기술력이 글로벌 전시 무대에서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세아그룹은 지난 4월,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철강 전시회 'Wire & Tube 2026'과 국내 최대 규모의 '2026 부산국제원자력 에너지산업전'에 잇달아 참가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전시회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과 탄소중립, 그리고 AI 시대를 맞아 급격히 부각되는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세아가 어떤 유연한 진화와 기술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완벽한 무대였다. 독일에서는 그룹 통합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경쟁력을, 부산에서는 차세대 에너지 시장을 겨냥한 핵심 소재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 산업 환경의 변화를 선도하는 세아의 유연한 대응력을 확고히 입증했다.

“세아의 기술력과
방향성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됐다.”

그림자를 활용해 세아가 지향하는 '유연한 대응력'을 공간적으로 표현했으며, 빛을 투과하는 패브릭 구조를 통해 미래 산업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형상화했다. 전반적인 조명 연출은 세아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성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며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전시 기간 동안 부스에는 많은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졌으며, 세아의 기술력과 방향성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됐다.





“세아그룹은 글로벌 시장과 미래 에너지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력과 방향성을 동시에 알렸다.”

**차세대 에너지 시장 경쟁력 선보인
2026 부산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

한편, 세아첨원특수강은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2026 부산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INEX 2026)'에 참가해 원자력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소재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소개했다. 이번 전시는 'Nuclear Energy for AI-powered World'를 주제로, AI 및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안보 이슈 속 원자력 산업의 역할과 미래 기술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아첨원특수강은 대형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자력 밸류체인 전반의 핵심 소재 기술 역량을 선보였다. KEPIC 인증을 기반으로 국내외 원전 부품 제작사에 핵심 소재를 공급해 온 세아첨원특수강은 신한울 3·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주요 원전에 적용된 스테인리스 무게목강관과 반응로 내부 구조물용 고청정 정밀주조 소재 등을 전시하며 기술 신뢰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핵심 배관용 강재, 터빈 발전용 평강 등 발전 설비 전반에 적용되는

제품군을 소개하며 원자력 밸류체인 내 소재 공급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불량켓 차폐블록 모형이 함께 전시됐다. 세아첨원특수강이 공급한 선재 재킷용 스테인리스 튜브는 영하 269℃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강도와 연성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2010년 국제핵융합실험로에 성공적으로 공급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아첨원특수강은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핵융합 발전 진단장치용 평강과 고저기장·극저온 환경용 스테인리스강 소재 개발을 완료하는 등 차세대 에너지 시장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송전 등 전력 인프라에 적용되는 소재 솔루션도 공개했다. 터빈 블레이드 및 내열 볼트용 고강도 환봉·평강 소재와 열팽창 특성을 기존 대비 약 10% 수준으로 낮춘 불변강(INVAR) 소재를 선보이며 전력 손실을 줄이고 송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력을 선보였다.

이번 두 전시회를 통해 세아그룹은 글로벌 시장과 미래 에너지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력과 방향성을 동시에 알렸다. 세아는 앞으로도 축적된 기술과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윙스파 국산화로 새 하늘을 열다

세아창원특수강 · 세아항공방산소재 세아업적상 특별상 수상팀



항공기 한 대가 날아오르는 순간, 그 거대한 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다. 그중에서도 '윙스파(Wing Spar)'는 날개를 떠받치는 핵심 구조물로 항공기의 '척추'라 불린다. 이 핵심 부품은 오랫동안 해외 수입산에 의존해왔다. 기술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진입 장벽이었다.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엄격한 품질 인증, 수년에 걸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아창원특수강과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이 높은 장벽을 함께 넘어 보기로 했다. 이 결단에서 시작된 도전은 항공용 윙스파 단조품 국산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편 채취 위치를 정하는 것부터
도면을 새로 작성하고, 품질 문서를 구축하는 일까지,
모든 과정이 '첫 도전'이었다.

불가능에 가까웠던 시장

항공 산업은 한 번 구축된 공급망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윈스파와 같은 핵심 구조 부품은 검증된 공급처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걸프스트림의 비즈니스 제트기 G280용 윈스파 소재는 오랫동안 해외 공급망에 의존해왔다. 긴 납기와 제한적인 공급 구조로 인해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다. 대형 알루미늄 단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경험이 국내에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세아산업상 특별상 수상팀은 '할 수 없는 조건'에 갇히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항공용 윈스파를 생산하는 대형 형단조 설비는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없이는 구축 자체가 불가능하다. 업적상 수상팀은 우회로를 선택했다.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해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최상민 팀장은 "기존 설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출발점이었다"며 "기존 자유단조 설비를 활용하면서 금형을 새롭게 설계·제작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이 선택은 공정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정의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었다. 가장 큰 난관은 소재였다. 세아창원 특수강은 철강 단조에 강점을 가진 회사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소재는 알루미늄이었다. 문제는 알루미늄이 기존 소재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가열을 해도 색이 변하지 않아 적정 온도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고, 조금만 조건이 어긋나도 내부 조직 품질이 크게 달라진다. 결국 업적상 수상팀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관련 논문과 기술 자료를 끊임없이 찾아가며 기술을 하나씩 습득했고, 수없이 이어진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쌓아나갔다. 샘플을 반복 투입하고 온도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측은 테스트와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며 데이터를 축적했고, 이를 통해 적정 가열 조건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문수 주임은 단조 조건 도출 과정에 대해 “금형 적용 초기에 발생한 변형, 치수 편차, 표면 불량 등을 개선하기 위해 테스트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공정 조건을 세밀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업적 상 수상팀은 백지에서 출발해 그들만의 공정조건을 만들어냈다.

기술을 확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항공 산업에서는 ‘만드는 것’만큼이나 ‘승인받는 것’이 어렵다. 이수진 대리는 “고객사의 까다로운 품질 승인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점이 가장 큰 과제였다”면서, “초도품 검사부터 최종 승인까지 총 8차례의 시제품 제작과 전체 테스트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소재 측면의 검증도 병행하며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시편 채취 위치를 정하는 것부터 도면을 새로 작성하고 품질 문서를 구축하는 일까지, 모든 과정이 ‘첫 도전’이었다.

그 과정 끝에 얻어낸 QTR(Qualification Test Report) 승인은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세아의 기술력이 글로벌 항공 산업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증명한 성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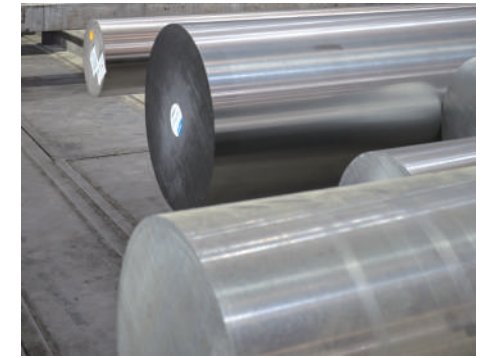
시간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인다

국산화의 효과는 분명했다. 기존 해외 조달 시 1~2년이 걸리던 리드타임은 약 4~5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 단순한 납기 개선을 넘어 생산 계획의 유연성과 공급망 안정성까지 확보한 것이다. 이는 곧 수요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졌고, 국내 항공 산업 전체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번 성과의 출발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다. 현장의 문제의식, 그리고 ‘해보자’는 선택이었다. 알루미늄 단조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해 논문을 찾아보고, 데이터를 쌓고, 공정을 반복 검증하며 기술을 하나씩 만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연구소, 생산, 품질, 영업, 그룹사, 외부 업체까지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였다. 대형 알루미늄 빌렛(원소재)은 세아항공방산소재가 공급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이 단조 공정을 담당했으며, 열처리 등 일부 공정은 외부 전문 업체와 협업해 진행했다.

이철한 팀장은 “세아항공방산소재가 공급하는 빌렛은 직경 약 35인치(약 890mm)에 달하는 대형 소재로, 국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빌렛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다”면서, 협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음을 강조한다.



이제 세아는
항공 소재 분야에서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
‘기술 파트너’로
나아가고 있다.

최상민 팀장은 “어느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적된 수많은 시도와 협업이 결국 하나의 구조를 바꿔냈다.

새로운 역사를 쓴 세아의 주역들

원스파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다. 해외 의존 구조를 바꾸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

이제 세아는 항공 소재 분야에서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 ‘기술 파트너’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형단조품 국산화, 후속 공정 확대, 생산 효율 고도화까지 다음 과제가 이미 시작됐다.

비행기의 구조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구조를 바꾸는 순간 산업의 방향도 함께 바뀐다. 세아의 도전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

품질과 공급의 안정을 도모하며 현장을 지켜온 시간

응우옌 쯡 타이(Tai)
SeAH Steel Vina 구매 · 품질 매니저

베트남 남부 동나이(Dong Nai). 베트남 제조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인 이곳에서 한 명의 '세아인'이 오늘도 생산의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원자재가 제때 도착하고, 제품이 기준에 맞게 생산되며, 공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 SeAH Steel Vina(이하 SSV)의 구매 · 품질 매니저 Tai다.

그의 하루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흘러간다.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그는 오랜 시간 축적한 경험으로 현장을 지탱해 왔다.

Tai



제품과 자재, 생산과 공급을 모두 경험한 그의 이력은
‘현장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관리자’라는
지금의 역할로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쌓아 올린 커리어

타이는 1984년생으로, 2008년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SSV에 입사했다. 이후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품질과 구매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커리어를 이어왔다. 그가 처음 회사를 선택할 당시 기준은 분명했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의 회사이면서 글로벌 시장과 연결된 환경이었다.

“세아는 이미 탄탄한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라면 단순한 직무 경험을 넘어, 산업 전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타이는 자신에게 큰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SSV에 입사했다. 실제로 그의 커리어는 한 방향으로만 확장되지 않았다. 품질 업무를 통해 제품과 품질경영시스템을 이해했고, 구매 업무를 통해 원자재와 공급망 전반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게됐다.

제품과 자재, 생산과 공급을 모두 경험한 그의 이력은 ‘현장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관리자’라는 지금의 역할로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산업의 중심에서

그의 고향은 베트남 중부 하띤(Hà Tĩnh)이다. 산업 기반이 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타지로 나가 일하는 지역이지만,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깊게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반면 SSV가 위치한 동나이는 베트남 제조업의 요충지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생산시설이 모여 있는 산업도시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은 곳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SSV는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글로벌 시장과 연결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호아(Bien Hoa)와 년쩍(Nhon Trach) 공장에서 생산되는 ERW 강관은 오일·가스, 건설, 소방 시스템 분야에 적용되며, 베트남 내수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다양한 국가로 공급된다.

타이는 “베트남 철강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원자재 가격이나 수출 규제 같은 외부 변수에도 민감하다”고 설명한다. 그 속에서 SSV는 고품질 강관 시장에서 품질 기준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관리하는 일

타이의 업무는 품질 관리와 구매 관리라는 두 영역을 아우른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산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품질 관리에서는 ISO, API, JIS, KS 등 다양한 국제 인증 기준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관리한다. 고객 요구사항을 분석해 생산 현장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구매 업무에서는 원자재 수급을 비롯한 부서 전반의 구매

활동을 관리·감독한다. 이 과정에서 적정 재고를 유지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자재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 역시 그의 책임이다.

“자재와 제품 표준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론이나 매뉴얼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실용성’은 그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 또한 품질과 구매는 작은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기에, 디테일에 대한 집요함과 일관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 다시 발생하지 않을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낍니다. 공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상태 자체가 저에게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같은 목표를 공유한 하나의 세아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코로나19 시기의 ‘3 on-site’ 경험을 꼽는다. 당시 직원들은 공장에 머물며 생산을 이어가야 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조직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한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 있다.

“그 시기를 겪으면서 협업과 유연함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환점은 2023년 ‘One-SeAH’ 프로그램 참여였다. 한국을 방문해 다양한 계열사 동료들을 만나면서 그는 회사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같은 이름 아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그가 체감한 ‘One-SeAH’는 특정 프로그램에만 머무르지 않고, SSV의 일상적인 업무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되, 업무 중심의 명확한 소통을 통해 균형을 맞춘다. 한국 특유의 ‘빠른 속도’는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업무 방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됐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습관도 갖게 됐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차이를 오히려 성장의 계기로 삼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방향이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공감대가 있을 때, 문화의 차이는 오히려 협업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타이의 목표는 명확하다. 더 효율적이고 실행력이 강한 팀을 만드는 것, 그리고 품질관리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고도화해 안정적인 품질유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품질과 구매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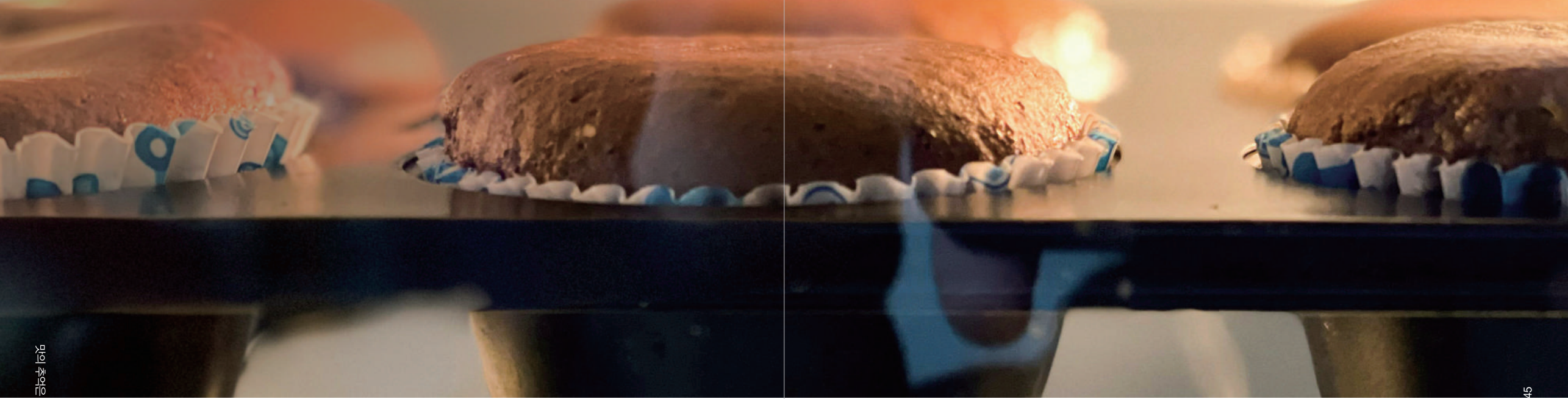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에게 세아의 의미를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고 답했다.

“세아는 제 커리어의 시작이자, 인생의 여러 단계를 함께한 곳입니다. 그동안 SeAH Steel Vina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들과 성장의 경험은 현재의 저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저를 만들어갈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산업 현장에서 그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흐름을 관리하고 기준을 지켜낸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하루’들은 SSV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



오븐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폭신한 행복, **머핀**



고소한 버터 향이 새어 나오는 오븐 속,
틀 위로 천천히 부풀어 오른 반죽은 둥근
돔 형태를 이루며 머핀으로 완성된다.
겉은 살짝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면서도
촉촉한 식감. 머핀은 화려한 장식 없이도
충분히 매력적인 간식이다. 재료도 조리
방법도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온도와
시간, 그리고 도구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담겨 있다. 오븐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폭신한 행복, 머핀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
다본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열에 의해 반죽 속 공기가 팽창하고 부드러운 조직이 형성된다.

‘틀’ 속에서 완성되는 조화

밀가루, 달걀, 버터, 설탕, 베이킹파우더를 섞어 반죽을 만든다. 반죽을 틀에 나눠 담고 오븐에 넣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천천히 부풀어 오른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열에 의해 반죽 속 공기가 팽창하고 부드러운 조직이 형성된다. 어느 순간 틀을 따라 둥글게 부풀어 오른 반죽의 윗면이 먹음직스럽게 갈라지며 머핀이 완성된다.

국어사전에서 머핀은 ‘밀가루에 설탕, 유지, 우유, 달걀, 베이킹파우더 따위를 넣고 틀을 사용해 오븐에 구워낸 빵’으로 정의된다. 간단한 설명이지만 머핀의 핵심은 바로 ‘틀’에 있다. 반죽이 자유롭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익어야 하기 때문이다.

머핀의 기원은 영국에서 시작된다. 초기의 머핀은 지금처럼 달콤한 케이크 형태가 아니라, 이스트를 넣어 발효시킨 반죽을 평평하게 구운 빵에 가까웠다.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노동자와 서민층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형태와 조리 방식이 달라졌다. 베이킹파우더를 사용해 빠르게 부풀리는 방식이 정착됐고 설탕과 버터를 비롯한 다양한 재료가 더해지면서 오늘날의 디저트형 머핀으로 발전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머핀 틀과 오븐의 존재다. 철, 알루미늄 등 금속으로 만든 머핀 틀은 열을 고르게 전달해 반죽이 균일하게 부풀도록 돕는다. 오븐 내부의 열은 겉과 속을 동시에 익히며 머핀 특유의 부드러운 조직을 만들어낸다. 머핀은 반죽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금속으로 된 도구와 열이 함께 어우러져 완성되는 결과물이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머핀이 구워지는 동안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난다. 반죽 속 공기가 팽창하고, 수분이 증발하며 조직이 단단해진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겉은 살짝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머핀이 완성된다.

취향을 더해 다채로워지는 맛

요즘 머핀은 카페에서 가장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디저트 중 하나다. 커피와 함께 곁들이기 좋은 간편한 간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부분의 카페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가 됐다. 특히 베이커리형 카페에서는 대표 메뉴로 활용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머핀의 매력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변주가 자유롭다는 데 있다. 기본 반죽 위에 어떤 재료를 더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맛과 식감이 만들어진다.

블루베리의 상큼함, 초콜릿칩의 달콤함, 견과류의 고소함은 각각 개성 있는 머핀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특성은 최근 머핀의 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크림치즈를 더해 풍미를 높인 머핀부터 말차와 흑임자 등 색다른 재료를 활용한 머핀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단맛을 줄이고 곡물이나 채소를 더한 건강 지향형 머핀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머핀의 본질은 한결같다. 금속 틀에 담긴 반죽이 일정한 온도에서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과정. 머핀의 맛은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완성된다.

한입 베어 물면 입 안 가득 퍼지는 따뜻함과 부드러운 식감. 머핀은 시간과 열, 그리고 도구가 만들어낸 균형과 조화의 결과물이다. ♣

M u f f i n



일 상 속 에 서 중 심 을 잃 지 않 게

해 주 는 힘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찾는 시간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운영지원팀
김민지 책임

김민지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를 놓치고 살아간다. 타인을 위해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자신을 돌보는 일은 뒤로 밀리기 쉽다.

김민지 책임에게 요가는 그런 일상의 균형을 되찾게 해주는 시간이다. 매트 위에 서는 순간, 복잡했던 생각은 잦아들고 오롯이 자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게 된다. 일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힘. 그는 요가를 통해 또 하나의 삶의 축을 세워가고 있다.



요가의 매력은 어제보다 조금 더 유연해지는 몸, 그리고 그 변화를 스스로 느끼는 과정에 있다. 남과 경쟁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그는 조금씩 자신의 한계를 넓혀간다. 작은 변화가 쌓여 만들어내는 성취감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함께 움직이며 쌓아가는 일상의 균형

포항의 한 요가원. 공간에 은은한 조명이 퍼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매트 위에 선 김민지 책임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다. 동작 하나하나에 시선이 아닌 감각을 집중하고 주변의 기척은 점차 멀어진다. 오직 '지금의 나'만 또렷해지는 순간이다.

낮선 도시 포항에서의 삶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연고가 없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그와 남편이 선택한 방법은 '함께 움직이는 것'이었다. 부부는 요가를 비롯해 러닝, 자전거, 등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갔다. 김민지 책임은 '가장 친한 친구인 남편과 함께 건강한 취미를 공유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매주 세 번, 퇴근 후 요가원에서 한 시간씩 수련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특히 남편과 함께 요가를 즐기게 된 것은 이 취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시작한 남편의 요가는 어느새 그의 일상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요가원에서의 60분은 비움과 채움의 시간이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요가원으로 향해 가볍게 몸을 풀고, 한시간 남짓 이어지는 수련 속에서 하루의 긴장을 비워낸다. 땀과 함께 쌓였던 피로와 감정이 흘러나가고 나면, 그 자리는 성취감과 안정감으로 채워진다. 그렇게 채워진 에너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이 된다.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의 전율

요가는 정적인 운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집중과 도전이 담겨 있다. 김민지 책임에게도 넘기 어려운 벽이 있었다. 손목이 약해 일상적인 동작에서도 통증을 느끼던 그에게, 체중을 온전히 지탱해야 하는 동작들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근력을 기르고 중심을 잡는 연습을 반복하며 결국 '시르사아사나(머리서기)'와 '바카아사나(두루미 자세)'에 성공했다.

"스스로 중심을 잡았을 때의 성취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동작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넘어,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무척 커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몸을 믿는 마음,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 모든 것이 맞닿았을 때 비로소 균형이 만들어졌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는 흔들리는 과정조차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매트 위에 서는 시간이 쌓일수록, 중심을 잡는 힘도 함께 단단해지고 있다.

삶의 중심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김민지 책임의 업무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기능직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함을 해결하며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타인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지쳐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럴 때 요가는 그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호흡에 집중하고 몸의 감각을 따라가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이 차분히 가라앉아요.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죠. 요가는 제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타인을 위해 에너지를 쏟는 사람으로, 요가원에

서는 자신을 위해 에너지를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두 모습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일상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그는 요가를 '내 한계를 부드럽게 넓혀가는 기분 좋은 도전'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 도전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단 하나의 원칙에서 시작된다. 바로 '일단 매트 위에 서는 것'이다. 그 단순한 시작이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 여행지에서도 그는 요가를 이어간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다양한 곳에서 현지 요가 수업을 경험하며 낯선 공간 속에서도 몸과 호흡으로 스스로를 연결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지금 연습 중인 동작들을 더 안정적으로 완성하고, 언젠가는 요가의 성지라 불리는 발리 짱구에서 수련을 해보는 것이 바람이예요."

발리에서 남편과 함께 매트를 펼치는 장면을 떠올리며 오늘도 그는 꾸준히 연습을 이어간다.

쉽 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는 일, 그리고 나를 향해 시선을 돌리는 시간. 김민지 책임에게 요가는 그런 의미를 지닌다. 그 잠시의 쉬이 결국 더 멀리 나아갈 힘이 된다. 그는 오늘도 그 단순한 진리를 매트 위에서 조용히 증명해 나가고 있다. ♡

내 한계를 부드럽게 넓혀가는 기분 좋은 도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법

2022년 9월, 설렘 속에 입사한 김민지 책임은 현재 세아 특수강 포항공장에서 채용, 급여, 교육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시작과 성장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애정을 쏟으며, 임직원들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는 업무인 만큼 그의 하루는 늘 타인을 향해 있다.

그런 그에게 요가는 '오직 나를 향하는 시간'이다. 중학교 시절 학업 스트레스로 지쳐 있던 때, 어머니의 권유로 처음 시작한 요가는 오랜 시간 그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학업으로 인해 잠시 멀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매트 위에 서게 된 이후로 요가는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습관이 됐다. 어린 시절 느꼈던 고요함과 집중의 감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어제는 닿지 않았던 손끝이 오늘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 작은 변화를 체감하는 과정이 큰 성취감을 줘요. 유연해지는 만큼 몸과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 지는 것을 느끼죠. 굳어 있는 몸을 깨우고 한계를 넓혀가는 그 정직한 과정이 요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Anyang Pavilion

머물고 흐르며 누리는 자연과 예술 | 안양파빌리온 |

건축은 대개 완결된 형태를 지니며 내부와 외부를 구분한다. 그러나 안양파빌리온의 경계는 느슨하게 열려 있다.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자리한 이 건축물은 '머무는 장소'인 동시에 '흐르는 공간'이다. 콘크리트와 금속, 그리고 비움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리듬 속에서 건축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풍경의 일부로 존재한다.



경계가 없는 열린 파빌리온

안양파빌리온은 포르투갈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알바로 시자(Alvaro Siza)가 설계한 조형예술 건축물로, 한때 쇠락했던 유원지를 예술공원으로 탈바꿈시킨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예술공원로에 접한 긴 대지 위에 관악산을 배경으로 나지막이 자리 잡은 안양파빌리온은 자연환경 속에 스며들 듯 놓여 있다. 완만한 곡면 벽체 위에 곡면 지붕이 얹힌 외관, 그리고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읽히지 않는 기하학적 형태는 이곳을 '시적인 건축물'로 불리게 한다.

내부는 회백색의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한 셸(shell) 구조로, 다양한 곡면이 이어지며 단일 공간을 형성한다. 조명을 최소화하는 대신 개구부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한 실내의 자연의 변화를 고스란히 받아들인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흐릿한 이곳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동선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읽히지 않는 기하학적 형태는 이곳을 '시적인 건축물'로 불리게 한다.



비움으로 완성되는 내부 공간

안양파빌리온은 '예술 도서관'으로도 불린다.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도서관이자 예술작품 속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내부에 들어서면 정중앙에 널찍한 쉼터가 눈에 들어온다. '오아시스'라는 이름의 이 공간에는 신혜원 건축가가 제작한 대형 소파가 있다. 그는 흔히 구할 수 있는 골판지를 친환경 옥수수 풀로 이어 붙여 지름 7.2m의 원형 소파를 만들었다. 종이로 만들어 약할 것 같지만, 사람이 뛰어다녀도 끄떡없을 정도로 튼튼하다. 방문객들은 이곳에 편안히 앉거나 누워 책을 읽는다.

최정화 작가의 '무문관'은 이름 그대로 문이 없는 열린 장소다. 시민들이 기증한 자개장과 길에서 수집한 가구, 합판 등을 활용해 만든 설치 작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전통 수납장을 떠올리게하는 이 책장에는 시중에 판매하지 않는 책을 비롯해 안양예술공원과 함께한 작가들의 책들이 가득하다. 알바로 시자가 기증한 도서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소장하고 있어 그 가치를 더한다.

넓은 유리창에 드리운 싱그러운 풍경 속에서 천천히 책장을 넘기는 사람들의 표정은 더없이 안온하다.





도서관 옆 예술공원

안양파빌리온을 나서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안양예술공원으로 이어진다. 안양의 정체성을 담은 60여 점의 현대미술작품이 놓인 이곳에서 건축과 예술, 그리고 자연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오픈 파빌리온'은 철을 포함한 금속 프레임 구조로 이뤄진 작품이다. 최소한의 구조만으로 공간을 구성하면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허문다. 금속 구조는 분명 존재하지만 시야를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풍경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틀이 된다.

하천 변에 놓인 '안양 2019'는 장소성과 시간을 담아낸 설치 작업이다. 수백 개의 긴 각목을 일정한 간격의 사선으로 정렬해 완성한 사방 5m 크기의 큐브 형태를 하고 있다. 각목 사이의 틈으로 햇살과 바람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한쪽에는 문이 있어 내부로 들어가 잠시 머무르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거나 쉴 수 있다.

'반영산수'는 물과 반사 효과를 활용한 작품이다. 뒤편에는 나무 한 그루가, 앞쪽에는 돌 하나가 놓여 있으며 그 사이에 흐르는 물을 연상시키는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을 배치했다. 매끄럽게 연마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은 주변 풍경을 선명하게 투영하고, 불규칙하게 굴곡진 표면은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실재와 가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 계절과 날씨, 빛의 변화와 보는 위치에 따라 한순간도 정지해 있지 않은 이 풍경은 존재의 실존과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금속 프레임 구조로 이뤄진 또 하나의 작품 '오픈 스쿨'은 컨테이너를 활용한 다목적 공간이다. 작가는 45도 각도로 절단한 8개의 컨테이너를 결합해 생선 가시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를 완성했다. 경사 지형을 살린 1층은 계단식 야외 강당으로 조성됐으며, 공중에 떠 있는 듯한 2층은 워크숍, 회의, 작가 스튜디오 등으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공간이다. 3층으로 올라가면 다이빙대처럼 안양천을 향해 뻗은 야외 데크가 있다. 이곳은 안양천과 주변 마을, 그리고 학운공원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한다.

안양예술공원은 자연 그 자체로도 충분한 공간이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과 바위,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자연의 시간을 경험하게 한다. 그 길 위에 놓인 예술작품들은 자연과 대비를 이루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단단하고 견고한 인공 재료는 오히려 주변 풍경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경험을 통해 다시 찾게 하는 곳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에 가깝다.

경험을 통해 다시 찾게 하는 곳

안양파빌리온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에 가깝다.

노출 콘크리트와 금속, 그리고 비워낸 구조는 건축을 단절된 구조가 아닌 소통과 연결의 매개체로 바라보게 만든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연과 예술을 막힘없이 향유하고 생각의 틀을 넓혀간다.

안양파빌리온을 나서며 좋은 공간은 오래 머물게 하기보다 다시 돌아오고 싶게 만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기에 안양파빌리온은 자연과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언제까지나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



세아제강

세아제강, 대한민국 수출 진흥 기여 기업으로 선정



세아제강이 한국수출입은행 창립 5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수출 진흥에 기여한 기업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세아제강을 '대한민국 수출의 도전과 성장을 이끌어온 소중한 동반자'로 예우하며, 그동안 쌓아온 굳건한 신뢰와 협력 관계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아베스틸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2차 사후 심사 무결점 통과



세아베스틸이 군산·창녕공장에서 진행된 'ISO 50001 2차 사후 심사'에서 중·경부적합 '0건'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인증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최초 인증을 획득한 이후, 전사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이어온 결과다. 이번 심사를 맡은 글로벌 인증기관 DNV는 컴프레서 인버터 교체와 사내 경진대회 개최 등 세아베스틸이 펼친 선제적인 에너지 저감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순형 회장 군산공장 방문, '생존과 도약'의 화두 제시



지난 5월 7일, 이순형 회장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방문해 염증한 시황 속 '생존과 도약'을 위한 경영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 회장은 "원가보다 안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파트너사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의 빈틈없는 안전 문화 정착과 철저한 환경 통제를 주문했다. 또한 기존 방식에 안주하는 관성적인 제조 반복에서 벗어나 매일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실행력과 고경비 효율화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세아창원특수강

가족과 함께하는 '줍깅' 봉사활동 실시



지난 5월 16일, 세아창원특수강은 창원천 일원에서 가족을 초청해 '줍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세아창원특수강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경상남도 청년봉사단과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창원천 일대의 쓰레기를 줍고 환경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모두가 일상 속에서 ESG 가치를 직접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Green Road' 가꾸기로 친환경 가치 실천



포항공장이 지난 4월 28일, 사내 친환경 경영 방침 준수를 위한 'Green Road'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 20명은 포항공장 외곽 및 법면 일대를 중심으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환경 미화 활동을 펼치는 한편, 코스모스 씨앗 파종을 함께하며 친환경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세아씨엠

환경의 날 기념 플로깅 및 휴공 던지기 봉사활동 실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세아씨엠은 군산 지역 기업 및 기관들과 함께 오식도 자유무역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자유무역공원 앞 하천에 휴공을 던져 하천 수질과 수변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인근 대로변 일대에 방치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세아M&S

가정의 달 맞이 안전 포어·포스터 공모전 성료



세아M&S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과 협력사가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 포어·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7개의 포어와 29개의 포스터가 접수됐으며, 90여 명의 임직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전사적인 화합의 장을 이뤘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임직원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 가정의 소중함과 일터의 안전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뜻깊은 메시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세아항공방산소재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 가정 나눔 봉사활동 참가



세아항공방산소재가 2026 세계인의 날을 맞아 다문화 가정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앞으로도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세아홀딩스

입사

조선아 커뮤니케이션팀

출산

신지혜 법무팀

세아제강지주

입사

신지현 IR팀
이재경 준법경영팀

출산

성민경 내부회계팀
윤혜림 기업문화팀

세아제강

입사

조영우 솔루션마케팅실
홍세연 경영기획팀
문성준 경영기획팀
류태경 회계팀
황대훈 STS수출팀
양현우 OF영업팀

출산

전진웅 포항공장 제품개발팀
김해주 인사팀
김태형 순천공장 업무지원팀
이귀현 수출팀
원용찬 순천공장 PM팀
최윤희 포항공장 물류팀
이동혁 포항공장 품질경영팀

결혼

김무성 포항공장 제품개발팀
김광희 순천공장 업무지원팀
이세운 포항공장 업무지원팀
권지수 포항공장 업무지원팀
안진성 순천공장 PM팀
윤한영 순천공장 생산팀
서현우 군산공장 품질경영팀
이민혁 포항공장 설비보전팀
조영진 구매2팀
소애은 회계팀
박소향 ESG팀
노치우 포항공장 설비보전팀
윤용성 DX팀

출산

최현영 2제강팀
박동성 압연설비팀
주형진 압연설비팀

결혼

이성태 안전팀 (부)
박동근 노동조합 (모)
박상문 소형정정팀 (모)
김정훈 연주팀 (모)

출산

서우진 수출팀
김윤동 STS수출팀
김진만 포항공장 중경2공장
이동현 본사 OF영업팀

결혼

최규하 포항공장 중경1공장 (부부)
박승호 순천공장 안전환경파트 (부부)
함형돈 영업1팀 (모)
최인로 포항공장 소경2공장 (부)
이두연 포항공장 ER기획팀 (부)
윤재필 창원공장 생산반 (모)
김승우 순천공장 OF생산반 (부)

세아베스틸지주

결혼

김미희 내부통제팀
손 석 CIO팀

세아베스틸

입사

김남현 압연설비팀
이성재 압연설비팀
양나래 ESG기술팀
윤주연 인재개발팀
신민식 경영기획팀
김보경 1제강팀
안찬을 제품연구1그룹
김성민 인재개발팀

결혼

구재희 환경팀
진혁준 제강설비팀
심명화 단조설비팀
주희진 CS팀
이지원 경인실수요영업팀

출산

이성태 2제강팀
박동성 압연설비팀
주형진 압연설비팀

결혼

이성태 안전팀 (부)
박동근 노동조합 (모)
박상문 소형정정팀 (모)
김정훈 연주팀 (모)

구자복 대형압연팀 (모)
최창식 소형압연팀 (모)
양재구 연주팀 (모)
김영훈 소형압연팀 (부)
이만길 제강설비팀 (모)
윤영환 1제강팀 (모)
신채수 소형정정팀 (부)
조효곤 제강설비팀 (부)
설승욱 생산관리팀 (모)
송기영 연주팀 (빙모)
최성민 연주 (빙모)
남설빈 압연설비팀 (빙부)
김인중 품질보증팀 (빙부)
이수만 압연설비팀 (빙부)
오중곤 대형압연팀 (빙부)

세아창원특수강

결혼

권오목 특수제강팀
이승훈 제강설비팀
이수인 관광단조설비팀
김동호 스틸제품연구1그룹
이성국 인재개발팀

출산

김도형 관광단조 설비팀
황주연 제강설비팀

결혼

김주형 2제강팀 (빙모)
권동훈 관광단조설비팀 (부)
배준식 시험관리팀 (부)

세아특수강

입사

이종원 추중공장 물류팀
김동현 추중공장 운영지원팀
이민호 디지털혁신팀

결혼

장은진 재경팀
강승미 인사팀
이희곤 추중공장 운영지원팀
강주한 포항공장 선재생산팀

출산

이성혁 추중2공장 봉강생산팀

결혼

이강현 대표이사 (빙부)
김형섭 포항공장 안전환경팀 (빙부)

세아씨엠

입사

양영진 설비팀

출산

이지민 3CCL
김용진 3CCL
김민호 3CCL
김상욱 1CCL
이승훈 전기정비반

세아M&S

입사

이동건 SCM팀
권지용 생산팀

결혼

성민우 SCM팀

세아항공방산소재

입사

우종원 기획관리팀
정현식 THS팀

결혼

이상기 가공반
서범교 물류반

출산

장현준 압출반
박세영 생산관리팀

결혼

이영섭 압출반 (부)
김명조 압출반 (빙부)

세아H&S

결혼

이혜진 업무지원팀

VNTG

입사

이지훈 PC1팀
조형준 플랫폼개발팀
안병휘 CORE팀
윤종원 R&D실
김정환 그룹웨어서비스팀

결혼

김지숙 MES3팀

당신을 칭찬합니다

2026 5+6월호 칭찬 주인공

VNTG 그룹웨어서비스팀
김총비 매니저님을 칭찬합니다!



VNTG 그룹웨어서비스팀 김총비 매니저는
그룹웨어 이용 중 발생하는
각종 기술적 문제에 대해 항상 침착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다양한 요청 사항에도 늘 성심성의껏
응대해 주시며, 김총비 매니저님의
성실함과 열정 덕분에 그룹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세아홀딩스 지원팀 송이보담 수석

본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세아가족〉 사보 기자

세아제강지주 기업문화팀 홍지수
세아제강 인사팀 안미경
세아베스틸지주 인사팀 정빛나
세아베스틸 경영기획팀 이정화
세아창원특수강 경영기획팀 전유진
세아특수강 인사팀 강승미
세아씨엠 업무지원팀 고은비
세아 M&S 인사팀 김윤정
세아항공방산소재 인사총무팀 한구일
세아 L&S 인사팀 정현영
세아네트웍스 기업문화팀 박정현
브이엔티지 People Hub팀 김효윤

SěAH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